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강 명 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어느 날 메일로 충격적인 사진 몇 장이 날아왔다. 비계파이프가 열기설기 얽힌 사이사이로 새끼맴게 타들어 가 죽은 거대한 시체 한 구가 보였다. 수많은 팔이 잘린 온몸 이곳저곳에 이불 훌렁처럼 큰 봉대가 친친 감겨 있었다. 봉대는 대부분 풀려 바람에 나부끼고 시체가 흘러 새까만 피로 뒤범벅된 지 오래인 듯했다. 거대한 몸 곳곳에는 링거 줄 몇 개가 무심히 엉켜 있었다. 극절 많은 세월을, 고단한 역사를 묵묵히 견뎌 왔을 그 몸은 비록 팔들이 모두 잘려 나갔지만 꿈틀대듯 솟아오른 몸통의 근육들 속에 금방이라도 윙트림하며 기응, 하고 살아날 것만 같은 환한 생기를 정지시키고 있었다.

## 한 나무의 주검

맛다. 새끼맴게 타들어간 이 거대한 시체는 나무다. 메일로 덩그마니 사진만 날아온 터라 사연이 궁금해 차를 몰고, 그 거대한 주검이 인간들에게 항거하듯 서 있을 영주담으로 달려갔다. 나무의 주검 앞에는 ‘보호수’라는 이름 아래 묘비처럼 이렇게 써어 있었다. “골격 : 마을 나무, 지정번호 : 11-28-3-4-19, 지정일자 : 1982.10.26., 수종 및 수령 : 느티나무 450년, 소재지 : 영주시 평안면 강동리 304” 450년 세월을 마을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으며, 그늘진 평상에서 나는 솔한 사연들 들어가며 동고동락했을 오지랖 넓은 당산나무, 바람둥이 까치가 집을 서너 채나 지었을 가슴팍 넓은 느티나무, 우물지 사이로 다람쥐들 오르내리고 까치가 집을 비운 사이 박새며 참새가 후드득 날아들어 잠시 쉬어갔을 다정한 나무. 영주담 공사로 느닷없이 수몰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서 견져 낸 450세의 연세 많은 나무는 인간으로 치면 12대가 넘는 세월을 뿌리박고 살아온 땅에서 파헤쳐져 하늘 향해 뻗은 팔 같았을 수많은 줄기를 몽땅 잘린 채, 몸통만 남아 보

선 곳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뿌리가 잘려 나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나무를 살리고자 인간들이 설치한 비계파이프와 거추장스러운 봉대와 영양제 주사를 비롯, 나무는 새까만 피를 토해 내며 죽었다. 현장을 안내해 준 지을 스님은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순간 나무 스스로 생을 거부한 거라고 말했다. 지을 스님은 부처의 마음을 곧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라며 생과 파괴의 현상 곳곳을 찾다니며 천막을 짓고 산다. 지을 스님을 중심으로 한 환경 모임인 ‘내성천과 친구들’은 영주담 건설 무효화 소송까지 제기했다. 영주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지역에 계속 산사태 현상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시멘트 탬 벙체 아래서 물이 솟아나와 이대로 담수를 할 경우 탬의 붕괴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뿐이라. 낙동강 상류의 지천인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담 때문에 황금 모래밭이 끝없이 이어지던 내성천은 물결이 막혀 황폐해지고, 주변 논들은 물이 말라 타들어 간다.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사라졌고 예쁜 학교와 자그마한 소방서와

동네를 이어주던 다리들이 사라졌다. 마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졌다. 영주담은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 지을 스님과 ‘내성천의 친구들’은 내성천 회룡포 부근에 예닐곱 평짜리 4대강 기록관을 세우고 있다. 어리석은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봐, 저거 봐, 놀랐지 않아? 모두, 모두 다 물구나무서 있어.” 맨부처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렇듯 나무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일묵진 이 땅에 뿌리박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때문에 피폐해진 이 땅을 두 팔로 지탱하면서 안간힘을 쓰며 살려내려는 건 아닐까. 이미 이 땅을 지탱해 줄 힘을 포기한 450세 느티나무의 주검에서 우리의 주검을 본다. 이 땅을, 우리 인간을 지탱해 줄 나무들을, 수많은 생명체를 찾아 간, 지금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어찌할 것인가.

## 종교칼럼



조발근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교회는 5월을 성모의 달로 보낸다.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그분을 특별히 더 생각하는 달이다. 성경 속 이스라엘은 광장히 남성중심 사회였다. 심지어 여자들은 노예와 같이 팔 수도 살 수도 있는 존재였다.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해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역사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심지어 구약성경에는 여인이 주인 공인 성경이 3권 있다. 룻, 유딤, 에스테르가 그렇다. 룻은 판관시대와 왕 시대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아즈를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주었다. 유딤은 아시리아 대

## 성경 속 여성들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죽여 유다를 구원한 인물이다. 에스테르는 바빌론 임금의 아내가 되어 유다인의 전통을 지켜낸 인물이다. 마카베오 하권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고문으로 일곱 아들을 설득해 전통을 유지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다. 성경은 이 어머니를 이렇게 기록한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레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2마카 7,20) 복음에도 나오는 여인들인 엘리사벳, 마리아, 마르타, 막달레나도 그러하다. 사도 바오로는 남존여비사상이 강한 헬라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필립비서에서 에우오디아와 스티케를 거론한다. “나는 에우오디아에게 권고하고 스티케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에게 당부합니다.”(필립 4,2) 이스라엘 전통 즉 히브리 전통과 헬라 전통이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여성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가? 성경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음에도 위대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교회 내

에서 성실성을 따지고 보면 여성들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성경은 남성 중심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존재를 모른척하지 않았다. 교회는 성경에 따라 여성의 존재를 모른 척하지 않았으며 여성이 눈에 더 띄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여성을 혐오하고 비하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점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에게 집단적 폭행을 가하는 것 같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른바 왕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야하는 나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매달 필요한 생리대조차 지원하지 않는 나라, 생필품을 지원하기는커녕 학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나라에서 여성은 가장 약한 존재일 뿐이다. 여성비하, 여성혐오, 더 나아가 인권의 시각에 놓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문제 존재하는 한 한국사회는 아만성을 벗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나와 함께 한 사회에 살아가는 여자, 나이가 소수자, 약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일 때 더불어 지금의 강자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 기 고



양 승철  
한국프라이머제약(주) 전무이사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4차 산업 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4차 산업 변화에 맞추어 꾸준한 사업구조 개선과 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 젊은 청년들의 미래의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자녀교육을 4차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의 진로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로봇을 이용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특히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줄어들고만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산업 발전 때문이다.

## 청년들이여 지역 중소기업에서 미래를 찾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더욱 더 좁아지는 취업문 속에서도 대부분 좋은 청년 인재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직만을 선호한다. 그 결과, 갈수록 지역에서는 경쟁 속에 취업이 안 되고 실업자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중소 기업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 인재들이 대기업과 공무원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 있는 유능한 기업에 눈을 돌려 진짜 나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지역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자기적성에 맞는 산업과 직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젊음과 패기, 열정이 있다면 지방기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에 대기업으로 키워가는 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에서는 젊은 인재가 필요하고, 그 젊은 인재들의 열정이 필요하다. 대기업을 찾는 이유가 첫 번째 안정적인 직장, 두 번째 ‘급여가 많아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빠른 변화 속에서 결코 안정적인 직장은 없다는 게 정실이다. 최근까지 잘나가던 최고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 했던 STX를 보자. 선박산업으로 성장했고 잘나가던 이 회사 또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영이 힘들어진 지금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기업도 결코 안정하기만 하는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요즘 인터넷이 발전하고 KTX 개통으로 인하여 정보와 장소 이동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 지금 젊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기업 이상의 안정된 직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가 급여 때문이라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

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주거 생활비도 훨씬 더 들어간다. 물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급여가 크게 축날 수 밖에 없다.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은 줄어 들지만 그만큼 주거 생활비 부분에서는 적게 들어갈 것이므로 금전적 여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 지방 중소기업은 젊은 열정을 가진 유능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4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창조 변화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기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데 그 젊음과 열정을 마음껏 쏟아 보기 바란다. 요즘 TV CF에 나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생각난다. 청년들이여 부딪쳐라. 일하고 싶은 그 간절한 욕망과 열정으로 지방중소기업에 도전, 미래를 설계하고 일한다면 결코 열정을 가진 청년 대들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쏟은 땀방울을 보상받고 회사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 社說

### 대량 실업 예상되는 화순탄광 폐광 안 된다

100년 가까이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던 화순 탄광이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연탄 소비 감소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탄광 노동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화순을 시작으로 2019년 태백 정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 순으로 가동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산 근로자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것으로 해마다 1000억 원 안팎의 적자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34년부터 본격적인 채탄 작업을 시작한 화순광업소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5억 원에 이른다. 근로자 수만 500명이 넘고, 가족까지 합하면 1500여 명이 탄광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서민들의 연료 문제를 해결하

고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탄광을 만성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막무가내 식 폐광은 대량실업 사태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어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 ‘폐광 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섰지만 먼저 문을 닫은 지역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도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산 근로자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면밀한 대책 없이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폐광을 고집한다면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무작정 광업소 가동 중단을 서두르기보다는 광산 지역 근로자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지원책을 마련해 민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아시아문화전당장 장기 공식 우르스럽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컨트롤 타워가 1년 가까이 공식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3월 시작한 공개 모집에서 적격자를 뽑지 못하고 문화전당장을 오는 16일까지 재공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전당장 선임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리야 9월까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당장이 선임되는 시점까지 불안정한 직무대리 체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적격자를 뽑지 못해 전당장을 재공모하는 모양새지만, 선임 지연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화전당 개관 이후 선임을 서두르지 않다가 올 3월을 넘어 전당장 모집공고를 냈고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직 안착과 미래 비전 설계 등이 문화전당의 현안임에도 불안정한 지휘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다. 실제 문화전당에는 직무대리 체계로는 돌봐주기 힘든 과제가 적지 않다. 5·18단체들의 광주항쟁 유적 복원 요구로 개관도 못하고 있는 민주평화교원원이 대표적이다. 5월 단체들과 담판을 지어야 할 사안이지만, 책임자 교체 예정돼 협상의 주도권을 쥔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셈문화장관회의(22일~24일)도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문화계에서는 “전당장 선임 지연이 정부의 문화전당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는 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전당장 선임을 늦춰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거점을 조타수 없이 방치하는 것은 광주와 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도 득 될 게 없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선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되, 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수도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중세 유럽에 ‘하늘을 나는’ 마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묻는 것은 난센스다. 당시 유럽의 지배 계층은 불합리한 사회체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선택했고, 이를 위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마녀’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녀가 날아다니고 악마와 난교를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학자들의 연구와 고증에 따르면, 중세에 마녀로 알려진 여성들은 ‘하늘을 날아 악마의 연회에 참석, 악마와 춤을 춘 뒤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공통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했다. 학자들은 이들의 경험을 ‘같은 종류의 마약에서 비롯된 유사한 환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마약이 바로 ‘마녀의 연고’로 불리는 녹색 기름이다. 17세기 영국의 한 마녀가 ‘마녀재판’에서 한 자백에 따르면,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기 전 몸에 연고를 발랐다.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 자백에서 그녀는 “악마의 연회에 가기 전 마녀들은 자신의 이마와 손목에 악마가 가져다준 기름을 바른다”고 설명하

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마녀들이 막대기 또는 빗자루에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마·목·겨드랑이·허벅지 등 몸의 연약한 부위로 흡수된 마약은 강력한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빈곤과 감성 위주의 불합리한 사회체제에 좌절한 여성들은 ‘마녀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까이 환각의 세상으로 도망쳤다. 여성들은 밤낮으로 환상을 마음에 품고 다른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 녹색 연고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널리 사용됐으며, 험록이나 나이트세이드·벨라돈나·싸리풀·만다라와 등 강력한 최면 효과를 발휘하는 독초 또는 약초들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환각에 빠지기 위해 마약 대신 사용되는 18개 물질에 임시 마약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이미 115종의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환각 물질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한국 사회가 ‘현실에서 도피하고픈’ 국민을 양산해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켜 봐야 할 것 같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 마녀의 연고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부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